

기복신행 때문에 자비에서 멀어졌다

■ 불교계 모금문화 진단

1월 아이티 지진참사가 있을 후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월 15일~3월 31일 아름다운 동행에 모인 '지진참사 아이티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기금'은 10억8706만 1739원, 개인 455명을 비롯해 사찰 및 단체 339곳이 동참했다. 모금액이나 동참자 모두 적지 않은 숫자이다.

반면에 개신교의 모금액은 160여 억원이다. 모금단체만도 월드비전(29억6000만원), 국제기아대책(15억원), 컴패션(15억원), 굿네이버스(5억원), 한국교회봉사단(32억원) 등이다.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성, 예성, 기감, 예장 백석, 예장 고신, 국제군대한국연맹, 대한성공회, 등 교단별 모금액만도 61억2000만원이 넘는다. 참여 교회 수만도 1만1000여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월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3958만 명, 개신교 1192만명, 가톨릭 487만명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교신자는 1072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불교계의 모금활동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불교는 자비를 강조한다. 부처님은 연기(緣起)이므로 나와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이다.

불교에서의 이웃돕기는 자비사상에 근간한 자비의 실천이다. 일본 학자 모리나가 마츠노부는 "불교복지이념의 기본 원리는 자비이고, 이것은 <화엄경> <대반야경> <무량수경> <법화경> 등 경전에서 정신적 구제에 한정된 것만이 아닌 빈곤 구제에 대해서도 통용되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법화경>은 인간 복지는 본래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며, 복지실현을 성스러운 행을 전개하는 인간상으로 묘사한 불교 사회복지의 근간으로 꼽는다. <반야경>도 보시를 포함한 육바라밀이 대승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했다. <화엄경>은 보살의 이타행을 강조했다. 경전에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이웃돕기가 부족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불자의 불교 인식이 기복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 찬탄과 공양만 하고 이웃돕기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사찰의 법회에서 보살·자비정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복천사상, 인과사상, 자비 등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미 나눔에 대한 큰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3면으로 계속



부처님오신날 봉축준비 한창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사찰은 본격적으로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4월 8일 한미유선연 청년회원이 연등축제 때 선보일 '문수보살의 꽃길'에 마지막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원 기자

50년 전 부처님 전상서 공개

법정 스님 추모 열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한국불교가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없는 종교라면 그것은 일고의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 강토에 들어온 지 1600년! 오늘처럼 이렇게 병든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물을 것도 없이 제자 된 저희들

전체가 못한 탓입니다." 법정 스님이 1964년 10월 11. 18. 25일 3주간 '대한불교' 신문에 게재했던 글이다. 50여 년 전 글이지만 요즘 불교계에 내려지는 족비 같다. 법정 스님이 쓴 '부처님 前上書'가 최근 공개되며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처님전상서는 젊은 비구 법정 스님에게 들켜버린 불교계의 치부였다. 개혁운동가였던 부처님처럼 법정 스님은 불교 현실을 통탄함과 동시에 불교계의 자기 반성을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제1편 전상서 서장에서 "불도의 황무지에 밝은 씨앗이라도 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주변을 살살이 뒤져 헤치는 작업이라도 해야겠다. 말하자면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알고 있는 자신의 집현에 대한 진단 같은 작업"이라며 전상서를 쓰는 사유를 밝혔다.

스님은 불교 인재양성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해명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인재 기르는 교육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껏 일로만 축문처럼 외워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말조차 무색하리만큼 전 근대적인 유토피아서 박물관 진열장으로서나 들어가야 할 쓸모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현대적인 방법론도 구체적인 계획성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40여 년이 지난 불교계 인재부족에 대한 우려와 다름이 없었다.

전상서 제2편에서 스님은 출가자들의 세속적 욕망, 기복적인 종교행위 등을 지적했다. 법정 스님은 출가자의 권력욕을 '황색의자'로 비유했다. 스님은 "삼보의 정재를 합부로 탕진하고 나아가서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채 사회적으로 불

미스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를 그동안 드물지 않게 보아오고 있다"며 "기본재산이 좀 여유 있거나 수렴이 우거진 절은 서로가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꼴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이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전상서2편 '극락여행관'에서는 <다라니>를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소행, 기복적 불사행위 등의 비판으로 불교 내부의 자정을 주장했다. 스님은 끝에서 "전상서를 쓴 것은 우리들이 당면한 오늘의 현실을 제시하려는 뜻에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아픈 곳을 향해 자학적인 사색을 가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4월 7일에는 법정 스님 4재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봉행됐다. 법정 스님의 4재에 동참하기 위해 경주 기림사 신도들이 대형버스 4대를 대절했다. 전국은

오프라인 서점 집계 결과에 따르면 4주 연속 스님의 책은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법정 스님의 저서를 출판하기로 한 만큼 법정 스님의 유작은 쉽게 순위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언 기자

"안상수 원내대표 정계 물러나라"

대중결사 · 불교자주실천본부 사퇴 촉구... 지방선거 낙선운동 검토

불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정치계 퇴진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승가 결사체인 청정승가틀위향대중결사와 불교계 재가단체인 불교자주실천본부는 각각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식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의 자주성 회복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청정승가틀위향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4월 9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하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전달했다. 대중결사는 6일부터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면담을 거부당했다.

이날 대중결사는 기자회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과 및 정계 퇴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신문 광고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6·2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선 8일 재가불자 171인은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불교 자주성 수호와 조계종단 개혁 정신 회복을 위해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중결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서동석 발기인 대표,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조계종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 김윤길 임시대변인(동국대 교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현 상황을 오만한 정치권력의 불교 능멸과 자주성 침탈사태로 규정한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정계 은퇴 △현 정권의 종교편향과 불교

자주성 훼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참회 △종단 개혁정신 회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실천 지침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알림 본사 이전... 4월 17일 수송동으로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선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4월 17일 사무실을 서울 수송동으로 이전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소: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대표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승광사 전직임 조실 환안스님 極大回 流眼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 · 합격 · 취업 · 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후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어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 12kg

불·교·미·다·어·연·구·소 **중요합장** 제가가격문의

바라밀다院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가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